

『四聖懸樞』에 관한 研究

金美仙·尹暢烈*

關於『四聖懸樞』的研究

金美仙·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四聖懸樞』於前四卷分別對溫病 疫病 痘病 疹病的起源和研究結果進行了論述，皆採用了六經辨證，而在後五卷則以問答的形式，對前四卷未能詳細闡明的疫癘之含義給予了補充論述，在治療方面，對溫病 溫疫 疹病採取了透表清氣 涼營泄熱 益陰伐陽等治法，對痘病 寒疫則強調了因寒致病的病因特點，從而指出不當與溫病 溫疫 疹病進行混淆而犯下誤謬。

溫病的根源，在於冬季未能藏精使陽氣不守，從而導致相火發泄，這樣一旦到了春季，陽的根源皆被排泄，木則變火而成其溫，結果出現熱症。若風邪傷衛，致營血受阻，則成溫疫；若寒邪阻礙營血，則衛氣受阻而成寒疫。溫疫主要在木火之年因木火不得發散而成。寒疫是因金水之年未得斂藏而於秋冬發病，以寒熱和無汗為症狀特點。痘病同於成人的寒疫。如果小兒感患傷寒，則因其皮毛緻密，衛氣旺盛，陽氣充滿，而致外感寒邪不易從肌表得到排泄，所以即使與成人患同一種疾病，也會症狀難消，而發為顆粒，此即痘病發生之因由。疹病為風傷衛氣，導致衛氣閉塞，而致營血鬱滯。若衛氣開通，營血發散，則會生出疹點。

總之，『四聖懸樞』乃黃元禦以四聖之理論為本，以創造性的觀點對溫病 溫疫 寒疫和痘疹進行了闡明，與現代的疾病病因與治法之說頗為相近。

Key words : 四聖懸樞, 黃元禦, 溫病, 疹病

I. 緒論

黃元禦는 清代의 저명한 의가로 字는 坤載, 號는 研農, 別號는 玉楸子라 하였으며, 山東 昌邑人으로 康熙 四十四年 乙酉年(1705년) 九月에 태어나고 乾隆 二十三年 戊寅年(1758) 九月에 享年 五十四歲로 卒하였으며, 黃帝, 岐伯, 仲景, 秦越人을 四聖이라 하여 尊崇하고 『內經』, 『難經』, 『傷寒論』 등을 연구하여 註釋을 하였으며, 『素問懸解』, 『靈樞懸解』, 『四聖心源』, 『傷寒懸解』, 『金匱懸解』, 『素靈微蘊』 등의 著書가 現존한다¹⁾.

『四聖懸樞』는 乾隆十四年(1749년) 黃元禦가 45세 되던 이른 봄에 溫疫痘疹의 뜻을 분석하여 草하고 辛未年 六月(乾隆十六年 서기 1751년)에 淸江書院에서 교정을 하였고 乾隆十八年(1753년)에 완성하였다²⁾.

그는 傷寒의 기원을 仲景으로, 溫病의 기원을 岐伯으로 보았으며, 前 四卷에서 溫病, 疫病, 痘病, 疹病의 기원과 연구 결과를 분별 논술하고 모두 六經辨證을 하였고 五 卷에서는 문답으로 前 四卷에서 상세히 밝히지 못한 疫癘의 뜻을 보충 서술하였다. 치료는 溫病, 溫疫, 疹病에 대하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열 · E-mail : yoony@du.kr

1) 甄志亞 主編, 高等中醫院校教學參考叢書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 385.
2) 孫洽熙, 黃元禦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103.

여 透表清氣, 涼營泄熱, 益陰伐陽을 주장하였고, 痘病, 寒疫에 대하여 寒의 원인을 강조하여 溫病, 溫疫, 疹病과 혼동하는 오류를 밝혔다.

『四聖懸樞』는 실제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논술한 급성 전염병의 우수한 저작으로 後學을 인도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西安市 東新街에서 名醫로 알려진 麻瑞亭은 1937년에 陝西省 中醫師考試에 참가하여 首席을 하였고 1931년에 西安 古城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창궐한 麻疹, 斑疹傷寒, 猩紅熱, 大頭瘟 등 급성 전염병을 잘 치료하였는데 기본이 된 책은 『四聖懸樞』였다고 하였다³⁾.

우리나라에서의 黃元御에 대한 研究로는 그의 著書인 『四聖心原』에 대한 翻譯이 있고, 李相滿의 『四聖心原』拔萃譯 및 黃元御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⁴⁾, 崔桓壽의 黃元御의 生涯와 醫學思想⁵⁾ 등의 선행 연구가 있다.

그러나 黃元御의 著作중 溫病과 疫病, 痘病, 疹病에 대한 『四聖懸樞』에 대한 연구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四聖懸樞』를 연구하고 그의 觀點을 살피는 것이 오늘날의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그 일부를 발표하고자 한다.

II. 本 論

현대의 환경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疾病들을 살펴 볼 때 淸代 溫病學派 들의 觀點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서 淸代 溫病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바 그 중에 錯簡重訂派인 黃元御의 著作 중 溫病에 관한 저서인 『四聖懸樞』를 연구하였다.

乾隆 十八年 癸酉年(1753년)에 黃元御는 “역대 의가의 溫病, 疫病, 痘病, 疹病 등 네 가지 병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하니 諸家의 論술이 대단히 잡다하여 두드러진 것이 없고 藥은 대부분 맹

랑하며 정미롭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內經』, 『難經』의 經旨와 魏秦 이래의 論술을 참작하여 『四聖懸樞』5권을 찬하였다. 『四聖懸樞』제1권은 溫病을 논하고 제2권은 疫病을 논하고 제3권은 痘病을 논하고 제4권은 疹病을 논하였으며 溫病, 疫病, 痘病, 疹病의 기원과 연구 결과를 분별 論술하고 病因과 機轉은 六經辨證으로써 八綱을 해석하였다. 마지막 5권은 伊公의 四問과 黃元御의 答변으로 앞의 4권의 상세하지 않은 疫癘의 뜻을 보충 서술하였다.

黃元御는 『四聖懸樞』에서 溫病, 疫病, 痘病, 疹病의 같음과 다름을 原因, 증상, 治法의 같고 다름에 의하여 구분하고 밝혔는데 주로 六經氣化에 의한 熱化와 寒化를 위주로 十二經의 병증과 治法을 설명하였다.

그의 六經氣化理論을 살펴보면 傷寒六經을 司化六經과 從化六經으로 나누어 六氣의 변화하는 性情으로 해석함으로써 傷寒뿐만 아니라 溫病, 疫病, 痘病, 疹病의 生理와 病理를 설명한 것을 알 수 있다.

六氣의 기본 개념에 대해 『四聖心原·六氣解·六氣從化』에서 “天有六氣 地有五行 六氣者 風熱暑濕燥寒 五行者 木火土金水 …… 六氣五行皆備於人身”이라고 하여 六氣는 곧 五行의 魄이 되고 五行은 六氣의 魄이 되므로 六氣는 五行의 形質을 기초로 하여 動的 氣化運動을 갖춘다고 설명하여 六經 氣化는 六氣와 五行이 결합된 것으로 論술하였다.

六氣의 변화에 대하여는 『四聖心原·六氣解·六氣從化』에서 “足厥陰以風木主令 手厥陰火也 從母化氣而爲風 …… 足陽明土也 從子化氣而爲燥”라고 하였고, 『四聖心原·六氣解·本氣衰旺』에서 “經有十二 司化者六經 從化者六經 從化者不司氣化 總以司化者爲主 故十二經統於六氣”라고 하여 司化六氣와 從化六經으로서 六經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傷寒懸解·六氣司令』에서 “足太陽膀胱經以寒水主令 手太陽少陽之火 從而化寒 …… 足厥陰肝以風木主令 手厥陰心包之化從而化風”이라 하고 또 “少陰少陽陽明 手經司氣而足經從化者 厥

3) 孫治熙, 黃元御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p. 1119.

4) 李相滿, 『四聖心原』拔萃譯 및 黃元御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東義大學校, 釜山, 2003.

5) 崔桓壽, 黃元御의 生涯와 醫學思想, 大田大學校, 大田, 1995.

陰太陰太陽 足經司氣而手經從化者也.”라고 하여 司化六經은 足太陽膀胱經, 手陽明大腸經, 手少陽三焦經, 足太陰脾經, 手少陰心經, 足厥陰肝經이고, 從化六經은 手太陽小腸經, 足陽明胃經, 足少陽膽經, 手太陰肺經, 足少陰腎經, 手厥陰心包經이라 하였고, 從化하는 것은 氣化를 관장하지 못하고 모두 司化하는 것이 주관한다고 하였다⁶⁾.

1. 溫病解

黃元御는 溫病의 기원은 岐伯이고, 傷寒의 기원은 仲景이라 하였다. 明清代의 溫病學者 들을 비롯한 역대 의가들의 의견도 이 점에 있어서는 異論이 없다.

봄의 溫과 여름의 熱은 대부분 風邪에 감수된 것이 많고, 岐伯이 언급한 熱病은 傷寒의 한 종류로서 여기에서의 傷寒은 廣義의 傷寒이며 仲景의 『傷寒論』에서 언급한 狹義의 傷寒은 아니다.

清代의 溫病學派 역시 『素問·熱論』의 내용을 引用하였으나 溫病에 대한 원인을 伏氣溫病과 新感溫病으로 설명하였으며 傳播 경로 역시 六經 辨證과는 다른 점이 많다⁷⁾.

六經辨證은 經絡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張仲景이 傷寒論에서 外感 傷寒과 中風의 理法方藥을 세우는 근간으로 정립하였고, 후에 溫病의 衛氣營血辨證이 나오기까지 外感病뿐만 아니라 內傷雜病을 진단, 치료하는데 주류를 이루었다. 衛氣營血辨證은 葉天士가 外感溫病을 진단, 치료하는데 仲景의 六經辨證體系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창안한 변증체계가 그 후 清代 溫病學者들에 의해 溫病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辨證體系로 받아들여졌다⁸⁾.

黃元御는 溫病解 岐伯溫義의 註에서 “足之三陽, 自頭走足. 傷寒一日, 太陽受之, 太陽者, 諸陽

之所屬也, 故爲諸陽主氣也. 太陽行身之後, 其脈自頭下項, 挾脊抵腰, 連於督脈之風府, 邪自風府而入, 客於太陽之經, ”이라 하여 邪氣가 風府로 들어온다고 하였으나, 溫病學者들은 일반적으로 溫病이 시작되는 부위를 葉天士는 衛分, 吳鞠通은 口鼻로 들어와 上部에서 下部로 내려가는데 口鼻는 手太陰肺經의 부위이므로 手太陰에 病位가 있다고 한 것이 六經辨證과 다른 점이다⁹⁾.

그러나 黃元御가 “肺藏衛氣, 肝藏營血”이라 하고, “傷寒而氣反內鬱, 是以病在氣分. 脾爲己土, 乃營血滋生之本, 中風之病, 己土與木火受之. 木火主血, 隨己土而上升, 以陰體而抱陽魂, 故血常溫昇而內發, 中風而血不外達, 是以病在血分.”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葉天士의 衛氣營血辨證論도 六經辨證을 細分化한 것으로 볼 수 있어 六經辨證이 韓醫學의 寒 辨證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 같다.

傷寒과 溫病의 차이점을 內熱의 有無로 설명하였고, 溫病의 근원이 겨울철에 精이 저장되지 않아서 陽氣를 지키지 못해 相火가 발설하여 봄에 봄기운을 만나면 陽의 근원이 다 배설되고 木이 火로 변하고 溫이 변하여 熱이 되는 것이라 하여 內經의 이론을 따랐다. 그러나 清代의 溫病學者들 역시 溫病의 근원에 대하여 內經의 이론을 따랐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王士雄은 “寒邪에 손상되어 바로 發病하는 것이 傷寒이고, 바로 병들지 않고 (계절이)바뀐 다음 발병하는 것이 溫病이다”라고 하였다¹⁰⁾.

傷寒, 溫病, 溫疫, 寒疫, 痘, 疹 모든 병은 예외 없이 六經을 다 거치고, 모두 하루에 한 경을 돌아 육일이면 六經을 다 돈다하여 六經으로 모든 질환을 설명하였다.

溫病과 溫疫만이 三陰에 머물러도 寒證이 되지 않고 熱證이 되는 연유를 六經 氣化로 설명하였고, 土가 燥하고 목이 마르므로 陽을 내 보내

6) 崔桓壽, 黃元御의 生涯와 醫學思想, 大田大學校, 大田, 1995, p. 47.

7) 趙紹琴 外 2인 編著, 國譯溫病縱橫, 集文堂, 서울, p. 25.

8) 白上龍譯註, 國譯補註 溫熱經緯(上), 木과 土, 서울, p9, 10

9) 吳鞠通, 國譯溫病條辨, 集文堂, 서울, pp. 87-88. “凡病溫者, 始於上焦, 在手太陰 …… 風은 火의 母인데 火는 반드시 金을 이기므로 溫病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10) 白上龍譯註, 國譯補註 溫熱經緯(上), 木과 土, 서울 p. 2.

고 濕을 조장하는 치법을 써야 한다. 그래서 黃元御는 溫病을 치료하는데 浮萍과 地黃을善用하였다. 예를 들자면 『四聖懸樞·溫病解·臟腑治法』에서 地黃은 陽을 泄하고 濕을 도우는 下品이지만, 溫病에 이르러 土가 마르고 木이 고갈되면 반대로 신령한 보배로 이보다 좋은 약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黃元御가 內傷과 外感의 차이와 寒溫異氣의 다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치료법을 밝힌 것이다¹¹⁾.

2. 疫病解

疫病的 근원을 “溫疫之證，發熱出汗，得之於風。其年木火不能發泄，則人氣應之，多病溫疫，以孔竅閉而風氣泄之也。”， “其年金水不能斂藏，則人氣應之，多病寒疫，以孔竅開而寒氣閉之也.”라 하여 五運 六氣의 運氣論으로 설명했으며, “疫癘感於歲氣之偏，鄉里傳染，證狀皆同。少由主氣而多屬客邪.”과 “但疫感天氣之非正，淫泆纏綿，較之傷寒，頗難驅逐，而其入臟入腑，亦半關歲氣之偏。不盡由人氣也.”라 하여 주로 客邪(歲氣의 편중됨)에 의해 생기며 병이 걸리면 증상이 모두 같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여 오늘날의 전염병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溫病과 溫疫의 다른 점은 溫病은 經絡이 感受되고 내부에 積熱이 있을 때 발생하며 臟에 들어가도 寒證이 없고, 溫疫은 내부에 積熱이 없어도 병이 들며 三陰의 臟에 들어가도 熱證이 된다.

溫疫은 成人과 小兒 모두 丘疹과 斑點이 생하는 것이 차이가 없고, 臟寒證이 없으며 臟陰이 腑陽보다 강하면 停水가 생긴다.

溫疫의 치법은 邪氣가 營衛에 있을 때 表에 있으면 解表해서 內鬱을 발산시키고, 腑를 淸하여 營血을 발산시키고, 寒疫의 치법은 臟寒을 따뜻하게 하여 衛氣를 발산시킨다.

따라서 溫疫에서는 脾陰이 무너지면 營血을 滋潤하지 못하여 燥熱이 생겨서 營血이 밖으로 도달하지 못해 사망하게 되므로 脾陰이 중요하다.

寒疫은 金水の 해에 斂藏하지 못하여 秋冬에

병드는 것인데 寒熱과 無汗이 그 증상이다. 寒疫에서 腑로 전하는 것은 陽盛하면 內로 전하고 臟으로 전하는 것은 陰盛하면 內로 전한다.

寒疫의 육경의 증상을 살펴보면 太陽經證은 頭痛惡寒 血升鼻衄 水氣內停 煩燥發渴이고, 陽明經證은 嘔吐泄利 乾燥發渴 陽明腑證 潮熱 汗出 譫語 腹滿 便秘이고, 少陽經證은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痛 脅痞 寒熱往來 嘔吐泄利이며, 太陰經證은 痛滿吐利, 少陰經證은 厥逆吐泄, 厥陰經證은 厥逆發熱消渴吐泄로서 傷寒과 그 증상이 같으며 寒疫의 傳經도 역시 傷寒과 같고, 治法도 傷寒과 같은데 歲氣의 편중됨에 의하여 感受되므로 傷寒보다 邪氣를 쫓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寒疫은 내부의 陽이 旺盛하여야 살 수 있으므로 함부로 瀉下劑를 사용하여 裏陽을 毀損시키지 말아야 한다. 寒疫은 衛陽이 왕성하고 衛氣가 강해야 살 수 있다.

寒疫의 감염은 太陽經과 少陰經의 두 經에서 邪氣를 받는다. 寒水의 기운이 왕성하여 太陽經에 感受되면 少陰의 臟으로 傳해진다. 少陰은 水를 주관하고 五臟 가운데 陰이 少陰보다 盛한 경우가 없다. 太陰病과 厥陰病은 모두 少陰의 水가 왕성한 것에서 기인하니, 癸水를 瀉하고 丁火를 더하는 것이 三陰의 通治法이다.

寒疫은 邪氣가 經에 있는 것이 가장 경과가 좋고 다음이 腑, 臟의 순서이다.

3. 痘病解

痘病은 어른의 寒疫과 같은데 소아의 皮毛가 치밀한 것이 다르다. 痘病은 소아가 傷寒에 걸리면 皮毛가 치밀하여 痘病이 잘 걸리고 추운 지역이나 더운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아의 경우에는 衛氣가 성하고 陽氣가 가득 차고 孔竅가 긴밀해서 外感 寒邪가 肌表로 발설하지 않아서 成人과 같은 병이 들어도 증상이 절대로 없지 않고 발하여 顆粒이 되고 痘病이 발하는 유래가 된다.

衛氣와 營血의 盛衰에 따라 痘粒의 모양과 색이 달라진다. 痘病에서 陽이 盛하면 紅色丘疹이 올라오고, 陰이 盛하면 紫黑色으로 함몰된다. 울

11) 孫治熙,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北京, p. 1119.

라오면 생하고 가라앉으면 죽으므로 陰이 성하게 하면 안되고, 陽이 소멸되면 안 된다. 陰이 귀한 병은 溫病, 溫疫, 傷寒陽明實證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러한 내용에서도 그가 陽을 귀하게 여기고 陰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 의학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黃元御의 六經 氣化理論은 動的 상태를 중시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素靈微蘊』에서 “人之大凡 陽盛則壯 陰盛則老”라고 하여 陽氣가 사람이 생명활동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扶陽抑陰 사상은 『四聖心原·六氣解·本氣衰旺』에서 “足太陰脾以濕土 足陽明從燥金化氣 …… 是以燥氣不敵濕氣之旺 陰易盛而陽易衰”라고 하여 陽明燥氣가 太陰濕氣를 이기지 못하여 陽虛陰盛이 발생한다고 하여 扶陽抑陰의 병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체 생리에 濕이 이기는 것은 陰이 강한 것이고 陰이 강하면 모든 병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濕을 제거하면서 脾陽의 상승과 中氣를 소통시켜 陽氣를 돕는 것이 치법이므로 中氣의 升降을 원활히 하여 인체 升降機轉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¹²⁾.

痘病의 三陽經 治法은 寒疫의 치법과 같고, 寒疫의 치법은 傷寒의 치법과 같으나 다만 陽明腑證에 燥熱 譫語 腹痛 便秘가 있어도 陽이 망하는 것이 가장 피해야 할 일이므로 下法을 함부로 쓰지 않으며 혹 쓸 일이 있어도 滋潤劑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痘病의 三陽經證은 寒疫과 같으며 寒疫의 증상은 傷寒과 같으나 痘病이 풀리는 것은 痘가 생성되면서 풀린다. 痘病 三陰病은 傷寒 三陰病과 증상과 치법이 같으나 찬 약으로 瀉해서는 안 된다.

4. 疹病解

疹病은 成人의 溫疫으로 風邪에 의한 것이다. 疹病과 中風은 같이 風邪에 감수된 것인데 疹病

은 邪氣가 疫癘이고 봄여름에 발하면서 열이 흠어지면서 疹點이 나타나는 것이 중풍과 다른 점이다. 疹病은 病이 되기 전에 원래 內熱이 없으며 病이 든 후에도 역시 內寒이 없어 陽盛하면 腑로 전해지나, 陰이 성해도 臟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 疹病은 衛氣가 단혀서 營血이 발산되지 못하여 죽으므로 疹病환자가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陽明의 왕성함이다. 따라서 陽明腑證을 치료하는 법은 太陰의 寒水를 滋潤하고 少陽의 相火를 사하고 己土의 濕을 조장하고 庚金의 燥를 潤하게 하는 것이다.

病이 表에 있을 때는 汗法을 사용하고 經絡에 병이 있고 內熱이 없으면 함부로 寒藥으로 下法을 사용하여 裏氣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黃元御의 溫病과 溫疫, 寒疫, 痘病, 疹病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의 이들 병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六經病에 대해 『素問·熱論』에 나온 내용에 黃元御가 다시 뜻을 밝혀 서술하였는데 十二經의 走行 經路和 六經 氣화와 六氣의 生克勝復 亢害承制之變으로 설명하였다.

溫病解에서 “少陰은 君火가 時令을 주관하고 足少陰은 癸水로서 君火에서 化氣한다.”라 하고, 疫病解에서 “濕者, 脾土之本氣, 寒者, 腎水之客氣, 究之己土之濕, 亦緣癸水之旺. 戊土降於火位, 故其性燥, 己土升於水分, 故其性濕. 土生於火而火死於水, 火勝而土燥, 則土能克水, 水勝而土濕, 則水反 侮土, 火土雙敗, 水邪凌侮, 是以脾臟濕寒也. 濕旺而燥衰, 寒增而熱減, 則太陰日勝, 陽明日負, 營血日長, 衛氣日消, 痘家癘塌黑陷之根, 全由於此. 凡諸死證, 無不緣於脾陰勝而胃陽負也. 治太陰之臟. 養中扶土, 補丁火而瀉癸水, 無逾於茯苓四逆一方矣.”라고 하여 病因에 대하여 六氣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또한 『四聖心原·六氣解·本氣衰旺』에서 “經有十二 司化者六經 從化者六經 從化者 不可氣化 總以司化者爲主 故十二經統於六氣”라고 하여 司化六氣와 從化六經으로서 六經을 나누어 설명

12) 孫治熙,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117.

하였고, 『傷寒懸解·六氣司令』에서 司化六經은 足太陽膀胱經, 手陽明大腸經, 手少陽三焦經, 足太陰脾經, 手少陰心經, 足厥陰肝經이고, 從化六經은 手太陽小腸經, 足陽明胃經, 足少陽膽經, 手太陰肺經, 足少陰腎經, 手厥陰心包經이라 하였고, 從化하는 것은 氣化를 관장하지 못하고 모두 司化하는 것이 주관한다고 하였는데 그의 病因에 대한 관점이 이에 근거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¹³⁾

黃元御가 溫病의 원인이라고 채택한 “「金匱眞言論」: 夫精者, 身之本也, 故藏于精者, 春不病溫.”한 내용이나, 疫病解에서 언급한 “溫疫之家, 陰氣不衰, 足以濟陽, 則但傳陽經而不入陽明之腑. 寒疫之家, 陽氣不衰, 足以濟陰, 則但傳陰經而不入大陰之臟, 是謂順證. 六日六經俱遍, 邪退正復, 則表解而病愈矣.”라 하여 疫病이 비록 歲氣에 영향을 받으나 역시 각 개인의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 감수되는 것도 다르며 치료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오늘날 전염병이 夏節期와 濕하고 熱한 지역에 주로 流行하며 傳染病이 流行하여도 免疫力이 약한 노인과 소아들이 주로 손상을 받는다는 것과도 일치하는 관점이다.

疫病解에서 “蓋天地有六氣, 風火暑濕燥寒也, 歲有五運, 土金水木火也. 天之六氣, 隨五運而迭遷, 地之六氣, 亘千古而不變. 五運回周, 以天之六氣合地之六氣, 客主加臨, 太過不及之數見焉. 由是生克勝復 亢害承制之變參差不一, 而歲氣於焉不正.”라 하고, “疫癘感於歲氣之偏, 鄉里傳染. 證狀皆同. 少由主氣而多屬客邪.”라 하였으며, 問疫五條에서 “問: 溫疫得之風邪, 當與中風同法, 寒疫得之寒邪, 當與傷寒同法, 今溫疫不用桂枝, 寒疫不用麻黃, 其法不同何居? 玉楸子曰: 春夏溫病, 秋冬傷寒, 雖感天地之風寒, 然不因歲氣之偏. 至於疫癘, 陰陽愆狀, 寒喧錯亂, 或盛夏而零寒露, 或隆冬而飄溫風. 節候乖常, 是以成疫. 其分寒溫於冬夏者, 大略如此, 而未始盡然, 固難以桂枝 麻黃統治錯雜無定之寒溫也.”라고 하여

이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소아의 痘病을 胎毒이라 하였는데, 黃元御는 寒疫, 溫疫, 痘病, 疹病 모두를 歲氣에서 유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痘病을 후세의 天然痘라고 보면 “小兒痘病, 衛氣大發, 竅隧疏漏, 複感寒疫, 則與大人. 同以汗解, 故痘不再生. 小兒疹病, 即大人溫疫. 其痘後未嘗不病寒疫, 則其疹後何能不病溫疫, 是以可一而可再也.”라고 하여 한 번 감수된 후에 다시 감수되지 않는다는 점과 痘가 장차 생기려고 할 때 급히 表를 발산하면 痘가 나오지 못한다는 치법과 진병이 오늘날의 영구 면역이 안 되는 질환을 말한다고 간주하고, 溫疫과 寒疫에서 麻黃桂枝를 사용하지 못하는 연유를 설명한 것은 黃元御가 疫病의 발전 상황과 病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는 現代醫學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이백년 전에 이러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쉽고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四聖의 미묘한 뜻을 洞察하여 運氣學에 대한 정밀함과 深奧한 醫術 때문이며 절대로 우연한 일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¹⁴⁾.

그는 『素靈微蘊·序意』에서 “黃帝와 岐伯은 모두 돌아가셨으나 『靈樞』, 『素問』만 오직 전한다. 세상은 夏商周 3대를 지나면서 醫家에는 四聖이 있었으나 지금에 이른 후에는 가야할 방향을 잃게 되었다.”고 하였고, 『四聖心原·自序』에서 “의학에는 黃帝, 岐伯, 秦越人, 仲景의 四聖이 있어 이 四聖의 저작이 聖哲의 영예를 얻었다.”고 하여 『內經』, 『難經』, 『傷寒論』 등의 서적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고 의학의 근원으로 보고, 정밀하게 연구하였다. 그는 四聖이후에는 오직 孫思邈만이 古經의 經旨를 잃지 않았다고 하여 “仲景以後엔 오직 孫思邈만이 고대의 聖人の 根源을 잃지 않았다. 그 나머지 著作은 숲과 같이 풍성하나 조금의 통달한 것도 없다.”고 하였다¹⁵⁾.

따라서 『四聖懸樞』는 四聖의 미흡한 바를 밝히

13) 崔桓壽, 黃元御의 生涯와 醫學思想, 大田大學校, 大田, 1995, p. 47.

14) 孫洽熙,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北京, p. 1119.

15) 洪元植 外, 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東洋醫學研究員出版部, 서울, p. 343.

고 聖人의 말씀 중에 요점을 정확하게 잡은 것이 특색이다. 치료는 溫病, 溫疫, 疹病에 대하여 透表清氣, 涼營泄熱, 益陰伐陽의 치법을 밝혔고, 痘病, 寒疫에 대하여는 寒의 원인을 강조하여 溫病, 溫疫, 疹病을 혼동하는 誤謬를 밝혔고, 苦寒한 藥으로 痘病을 치료하다 陽氣를 손상하는 잘못을 밝혔다.

黃元御는 脾胃의 上升과 下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중요 병인으로 인식하였으며 中氣에 의해 五臟六腑의 기의 흐름이 원활해야 병이 들지 않는다고 보아 中氣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는 『四聖心原·天人解·臟腑生成』에서 “祖氣의 안에는 陰陽을 함축하고 있으니 陰陽의 사이를 中氣라 한다. 中이라는 것은 土이다¹⁶⁾.”라 하였고, 『金匱懸解·虛勞篇』에서 “脾가 상승하고 胃가 하강하는 氣를 中氣라고 하니 …… 이것은 元神을 생하는 祖氣이며 변화를 孕胎한 元神이며 天地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였다. 그는 中氣를 陰陽之間, 脾胃升降之氣로 보았고 五行에서의 土, 道家의 黃婆와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盛年時節에 目疾을 앓은 뒤 庸醫의 잘못된 투약으로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中氣의 손상도 컸다는 한탄을 하기도 하였다¹⁷⁾.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가 中氣와 中氣의 脾胃升降을 인체 생리활동의 바탕으로 본 것을 알 수 있으며 中氣와 中氣의 脾胃升降의 실조를 주로 土濕으로 보고 燥濕運土와 泄水補火하는 치법을 통하여 인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扶陽抑陰의 치법을 주장하였다¹⁸⁾.

또한 『四聖懸樞』에서 세운 處方은 뜻이 명백하고 약의 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하여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黃元御는 溫病을 치료하는데 浮萍을 善用하였으며, 또한 『四聖懸樞·溫病解·臟腑治法』에서 地黃은 陽을 泄

하고 濕을 도우는 下品이지만, 溫病에 이르러 土가 마르고 木이 고갈되면 반대로 신령한 보배로 이보다 좋은 약재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黃元御가 內傷과 外感의 차이와 寒溫異氣가 다르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¹⁹⁾.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말하기를 “당대에 黃元御가 찬하였으니 이 책에서는 溫疫, 寒疫, 痘病, 疹病이 모두 歲氣에 말미암는다고 하였다.”고 하였다²⁰⁾.

『四聖懸樞』는 傷寒, 溫病, 溫疫, 寒疫, 痘病, 疹病을 통해서 黃元御의 六經氣化理論, 中氣에 대한 이론, 扶陽抑陰論, 運氣論 등 醫學에 관한 깊은 이론적 성찰과 임상 적용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질환의 특징과 차이를 밝혀서 창안해낸 여러 처방들은 오늘날에도 임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I. 結 論

『四聖懸樞』는 溫病, 疫病, 痘病, 疹病에 대하여 研究한 著書로 그 內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溫病의 근원은 겨울철에 정이 저장되지 않아서 陽氣를 지키지 못해 相火가 발설하여 봄에 봄기운을 만나면 陽의 근원이 다 배설되고 木이 火로 변하고 溫이 변하여 熱이 된 것이다.

溫疫은 木火年에 木火가 발산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寒疫은 金水의 해에 斂藏하지 못하여 秋冬에 병드는 것인데 風邪가 衛氣를 상하면 營血이 막혀서 溫疫이 되고, 寒邪가 營血을 막으면 衛氣를 막아서 寒疫이 된다.

溫病과 溫疫의 다른 점은 溫病은 經絡이 感受되고 내부에 積熱이 있을 때 발생하며 臟에 들어가도 寒證이 없고, 溫疫은 내부에 積熱이 없어도 병이 들며 三陰의 臟에 들어가도 熱證이 된다.

溫疫의 治法은 邪氣가 營衛에 있을 때 表에 있

16) 孫洽熙,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126.

17) 孫洽熙,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111, 1117.

18) 孫洽熙,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116.

19) 孫洽熙,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118.

20) 孫洽熙,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118.

으면 解表해서 內鬱을 발산시키고, 腑를 淸하여 營血을 발산시키고, 寒疫의 치법은 臟寒을 따뜻하게 하여 衛氣를 발산시킨다. 따라서 溫疫에서는 脾陰이 무너지면 營血을 滋潤하지 못하여 燥熱이 생겨서 營血이 밖으로 도달하지 못해 사망하게 되므로 脾陰의 강화가 중요하다.

寒疫의 제 증상과 치법은 傷寒과 같은데 歲氣의 편중됨에 의하여 감수되므로 傷寒보다 邪氣를 쫓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寒疫은 내부의 양이 왕성하여야 살 수 있으므로 藜下劑를 사용하여 裏陽을 毀損시키지 말아야 한다. 寒疫에서 腑로 전하는 것은 陽이 盛하면 내로 전하고 臟으로 전하는 것은 陰盛하면 안으로 전한다. 疹病은 病이 되기 전에 원래 內熱이 없고 病이 든 후에도 역시 內寒이 없다. 陽이 盛하면 腑로 전해지나, 陰이 성해도 臟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

痘病은 어른의 寒疫과 같은데 소아가 傷寒에 걸리면 皮모가 치밀하고 衛氣가 성하며 陽氣가 가득 차서 外感寒邪가 肌表로 배설이 잘 되지 않으므로 成人과 같은 病이 들어도 증상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발하여 顆粒이 되고 痘病이 발하는 유래가 된다. 추운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痘病은 營血이 단히고 衛氣가 발산되지 못하면 죽는다. 疹病은 衛氣가 단히고 營血이 발산되지 못하여 죽으므로 위기가 열리고 營血이 발산하면 疹點이 생긴다. 衛氣가 발산됨은 陽明에 달려 있고, 營血이 발산되는 것은 太陰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痘病 환자가 가장 禁忌로 해야 할 것은 陽明의 虛이고 疹病患者가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陽明의 旺盛함이다.

疹病이 表에 있을 때는 汗法을 사용하고 經絡에 病이 있고 內熱이 없으면 藜下劑로 寒藥으로 下法을 사용하여 상하여 裏氣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四聖懸樞는 黃元御가 四聖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창조적인 관점에서 溫病, 溫疫, 寒疫, 痘, 疹을 밝힌 것으로 그의 中氣와 脾胃, 六經 氣化의 기본 이론을 엿볼 수 있으며 그의 觀點이 오늘날 질병의 원인과

치법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여러 질환에 대한 이론서와 임상서로서도 손색이 없음을 보여준다.

參考文獻

- 甄志亞 主編, 高等中醫院校教學參考叢書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 難經譯釋, 圖書出版 정담, 서울, 1993.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中國醫學史, 大田, 1997.
- 文濬典 外, 傷寒論精解, 경희대학교 출판국, 서울, 1996.
- 박헌재, 상한론개론, (주)약업신문사 출판국, 서울, 1995.
- 裴秉哲, 今釋黃帝內經素問, 成輔社, 서울, 1994.
- 裴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서울, 1995.
- 裴沛然 主編, 中國歷代名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4.
- 白上龍譯注, 國譯補注 溫熱經緯(上, 下), 木과土, 서울, 2001.
- 孫洽熙,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吳鞠通, 國譯溫病條辨, 集文堂, 서울, 2004.
- 王冰 編撰, 新編 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1994.
- 王琦 外 4인 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醫聖堂, 서울, 1994.
- 王好古撰, 醫壘元戎, 醫聖堂, 서울, 1999.
- 劉建平外 3인 編著, 傷寒雜病論, 河北科學技術出版社, 石家莊市, 1996.
- 尹暢烈외 1인 編著, 難經研究集成, 周珉出版社, 大田, 2002.
- 은석민, 傷寒溫病學史略, 周珉出版社, 大田, 2007.
- 李慶雨譯,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여강출판사, 서울, 2001.

19. 李相滿, 四聖心原 拔萃譯 및 黃元御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東義大學校, 釜山, 2003.
20. 張志聰 編註, 新編 素問集註, 大星文化社, 1994.
21. 趙紹琴 외 編著, 國譯溫病縱橫, 集文堂, 서울, 2004.
22. 陳夢雷 外, 醫部全錄, 成輔社, 서울, 1982.
23. 蔡仁植, 傷寒論譯註, 高文社, 서울, 1995.
24. 崔桓壽, 黃元御의 生涯와 醫學思想, 大田大學校, 大田, 1995.
25. 許俊, 東醫寶鑑, 法人文化社, 서울, 2007.
26. 洪元植,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27. 洪元植, 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28. 洪元植 외, 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東洋醫學研究員出版部, 서울, 1985.
29.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3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